

번역학 용어 번역 유형에 관한 한일 비교 고찰

이 은 용
(이화여대)

1. 서론

번역학은 과거 언어학이나 문학, 외국어 교육 등의 하위 범주에서 다루어졌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학제적인 성격을 띤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서 인접 학문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인접 학문 분야의 이론과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번역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번역학 연구는 1990년대부터 해외 번역이론을 들여와 번역, 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고(정호정 2010: 238) 이러한 흐름은 일본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과정에서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각각의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해외로부터 새로운 학문, 그와 더불어 유입되는 전문용어를 그 유입 경로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보면, 과거 일본을 통한 경로에서 직접 유입하는 경로로 바뀐 점을 꼽을 수 있다. 유입 경로가 바뀐 만큼 용어의 번역 또한 과거 일본에서 번역한 것을 차용하여 음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에서 각기 번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1) 번역학 용어의 경우 아직 용

어집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구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향은 번역학 관련 논문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적²⁾도 있다. 연구자 또한 국내 논문과 일본의 논문을 접하며 이러한 경향과 함께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에서 출발 한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번역학 용어의 사용 실태와 번역 유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학 용어의 사용과 번역에 영향을 끼친 요인, 즉 언어 환경을 둘러싼 양국의 배경 차이에 주목하여 고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번역학 용어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나아가 번역학 용어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전문용어와 번역 연구

전문용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제한된 특수한 목적을 가진 용어를 가리킨다. 이러한 전문용어는 그 개념과의 사이에 일의성, 투명성, 명시성, 간결성, 일관성 등의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³⁾. ‘용어집’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학회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전문용어를 제시한 것인데, 번역학의 경우 아직 해당 학회가 제시한 용어집이 존재하지 않고 그로 인해 한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는 상황에 있다. 번역학은 날로 그 저변과 연구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정리된 용어집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학문 영역의 확대가 오히려

- 1) 송영빈(2012:212)에 따르면, 한국어 전문용어는 일본어 전문용어의 차용으로 성립되었으며, 원래 난해한 한자어로 이루어진 일본어 전문용어를 음역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 1945년 이후 한글전용 확산으로 이들 전문용어의 이해도가 크게 저하되자 이러한 난해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잦은 용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 2) 정호정(2007:175)은 학문내적으로 기본적인 연구를 위한 전문용어의 제정과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과 이런 상황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 3) 전문용어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상기 내용은 국립국어원(2007)을 참조한 김성원, 김정우(2011)를 재인용하였다.

혼선을 가져오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번역학 분야에서는 최근 용어 통일의 시급성과 그 방법에 대한 모색을 다룬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학문 분야일수록, 전문분야일수록 전문용어의 제정 및 그 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의 선행적 활동 내용과 그 결과는 번역학 분야가 향후 용어와 관련된 연구와 활동을 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용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전개된 대표적인 분야로는 의학과 정보처리 관련 분야를 들 수 있고, 전문용어의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김성원, 김정우(2011: 36-38)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 번역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김정우(2000)는 언어학 술어 번역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어를 번역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미시적인 문제부터 거시적인 문제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우(2011) 스스로 전문용어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번역의 원칙을 피상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쳤다고 평하지만, 음역의 원칙, 국어의 조어법, 음상과 형태 길이, 표기 수단 등 실제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용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본다.

정호정(2007)은 학문적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번역학이 아직 통일된 용어를 가지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문제,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용어들이 체계 없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실증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번역학 용어 정립을 위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논문에서 제시한 혼재되어 사용되는 용어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찰이 이루어진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정호정(2007)에 혼재되어 사용되는 용어는, 본 논문의 분석에서 추출한 동일 개념에 대해 다수 용어가 사용되는 용어와 거의 동일하다. 그 이유는 모집단이 겹치며, 동일 개념에 대해 다수의 용어가 혼재되는 것은 그 성격 상 번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담은 용어이기 때문이다.

김성원, 김정우(2011)는 의학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전문용어의 번역 유형과 방법론을 논했다. 번역의 깊이와 폭을 살펴보는 데 있어 『의학필수용어집』(2006)의 영한 대역어를 분석하여 번역 유형을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의학 전문용어의 번역 단위가 주로 단어라는 점, 출발어가 영어로 되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김성원, 김정우(2011)에 제시된 번역 유형을 고찰하

는 데 사용된 분석틀을 원용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분석 방법에서 기술하는 것으로 한다.

3.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3.1 분석 자료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역학 용어의 사용 실태와 번역 유형을 보기 위한 것이다. 학문 분야의 용어에 관한 분석을 할 경우, 그 대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용어집일 것이다. 그러나 번역학의 경우, 아직 학회가 해당 분야 용어 사용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전문용어집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⁴⁾.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번역학 논문과 번역학 이론 서적 중 개론서에 해당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번역본이 출간된 제레미 먼디(J. Munday)의 『번역학 입문』⁵⁾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고, 여기 등장하는 용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의 경우, 시기뿐 아니라 주제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다루는 논문 대응쌍(국내 논문과 일본 논문의 쌍)으로 선정하였다. 양국의 번역학 용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어역의 용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국내 논문과 일본 논문의 대응쌍이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논문 대응쌍보다 같은 어역에 포함되는 용어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베누티(L. Venuti)가 주창한 번역 접근법인 ‘이국화’와 ‘자국화’를 주제로 한 국내 논문(‘동화(同化)’의 미학과 차이(差異)’

4) 『번역 용어집』이라는 제목의 서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은 1999년 미국과 유럽에서 출간된 『Translation Terminology』를 이연향(2005)이 한국어로 옮긴 것으로 국내에서 해당 학회가 주도하여 마련한 용어집이 아니다. 이러한 점이 국내 번역학 관련 학회의 주도하여 해당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용어집이라는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아직 국내에 전문용어집의 형태로 용어의 일원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서적의 일본어판은 2013년 1월 현재까지 출간된 것이 없다.

5) 『번역학 입문』은 한국에서는 2006년, 일본에서는 2009년에 출간되었다.

의 윤리: 문학 번역의 두 가지 명제』)과 일본 논문(『日本語翻譯における foreignization と domestication のストラテジー: オスカー・ワイル드의作品翻譯をめぐって』)을 대응쌍으로 하는 식으로 국내 논문 10편과 일본 논문 10편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국내 논문의 경우는 번역학 전문 학회지에서, 일본 논문은 전문 학회지와 학술 검색 사이트를 통해 분석 자료가 되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번역학 입문』을 선정한 이유는 아직 국내나 일본에서 번역학 전문용어 집이라는 형태로 용어의 일원화나 체계화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번역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시대별로 등장한 번역 이론과 그 내용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논문이나 책보다 번역학 용어가 다수 등장하기 때문이다. 정제된 용어, 책 전체적으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집필하는 논문과는 용어 사용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될 수 있다.

3.2 분석 방법

분석 자료에서 번역학 용어를 모두 추출하여 목록을 만들었다⁶⁾. 이 때, 동일한 개념에 대해 다수의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목록에서 각기 다른 것으로 따로 카운트 하고, 동일한 용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는 구분하여 보지 않았다⁷⁾. 이를 통해 살펴본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등장한 번역학 용어의 수와 그 중 동일 개념에 대한 타입⁸⁾의 수를 파악하여 한국어와 일본어에서의 양상을 비교, 고찰한다. 이 때 분석 대상인 번역학 논문과 『번역학 입문』에 등장하는 용어를 함께 묶어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번역학 입문』은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이 논문에 나오는 용어와 겹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6) 추출한 용어 목록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대부분이 단어 단위이지만 번역학에서 번역학 현상을 지시하는 몇 가지 구 단위의 표현도 포함시켰다.

7) 번역학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동일한 용어가 다수의 논문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정호정(2007)에 상세히 나와 있다.

8) 타입은 단어의 사전 표제어 형태, 즉 어휘 항목을 가리키고 토кен은 그것이 개별적으로 실현된 횟수를 말한다(김혜영 2009: 131). 본고에서는 동일 개념을 지칭하는 다수의 용어도, 그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타입으로 카운트하였다.

다음으로는 번역학 용어의 번역 유형을 구분하여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각 번역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양상을 비교한다. 번역 유형 구분으로는 김성원, 김정우(2011)에 제시된 것을 원용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영번역: 외국어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예) translation studies
- 2) 음성번역: 외국어의 음성을 한글로 표기한 것.
예) 메타포
- 3) 의미번역: 외국어의 뜻을 한글로 표기한 것
예) 바꿔쓰기
- 4) 혼용번역: 음성번역과 의미번역이 혼재된 것
예) 스코포스이론

상기의 틀로 한국과 일본에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번역학 용어를 분석하여 번역 유형의 실태를 비교하고 각각의 특징을 도출하여 그러한 특징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4. 분석

분석 자료에서 추출한 용어를 비교한 결과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하나는 용어 사용 실태와 관련하여 양국 모두 동일한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양상에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번역학 용어를 번역하는 유형에는 차이가 없으나 각 유형별 사용률에는 차이를 보인 점이다. 다음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4.1 용어 사용의 실태

분석 대상이 되는 국내 및 일본의 논문과 서적에서 등장한 용어 가운데 같

은 개념에 대해 두개 이상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추출하였다⁹⁾. 한 개념에 대해 가장 많은 용어가 사용된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번역접근법을 지칭하는 용어

foreignization		domestication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이국화	foreignization	자국화전략	domestication
이국화전략	異化	동화의 번역	domestication의 스토라테지
이화	異質化翻訳	동화	馴化
외국화전략	外化	도착텍스트중심번역	受容化翻訳
외국화번역	外国化	자민족중심번역	自民族中心主義
출발텍스트중심번역	原文密着主義	의미중심번역	
원문중심번역			
낮설게 하는 번역			

〈표 2〉 번역 대상 텍스트를 지칭하는 용어

source text		target text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원천텍스트	原文テキスト	목표텍스트	目標テキスト
출발텍스트	起点テキスト	번역텍스트	翻訳テキスト
원문텍스트	原テキスト	번역물텍스트	訳文
원텍스트	原典	번역문	
원문	原作	번역물	
원작		번역작품	
원작품		역문	

9) 정호정(2007)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서 발간된 전국규모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어 논문 85편과 한국어 초록이 포함된 영어 논문 10편을 분석하여, 번역학 연구의 기본개념을 기술하는 용어를 추출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와 그 빈도수를 파악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번역학 용어 사용실태를 보는 데 있어 한 개념에 대해 사용하는 번역 용어의 스펙트럼을 양국 간에 비교하고 그 원인에 대한 고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한다.

〈표 3〉 번역 대상 언어를 지칭하는 용어

source language		target language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출발어	起点言語	도착어	目標言語
출발언어	目標言語	도착언어	受容言語
원어언어		수용언어	
원천언어		목표언어	
원문언어		TL	
SL			

〈표 4〉 기타를 지칭하는 용어

author		translator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원저자	原著者	번역자	翻譯者
저자	原作者	번역사	訳出者
		번역가	
		역자	

상기의 표를 통해 눈에 띄는 사실은 한국어가 일본어에 비해 한 개념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은 양국의 학술 용어 표준화의 역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송영빈(2011)에 따르면 1945년 이후 전문용어에 대한 정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는 문교부 과학기술용어제정 심의회 주도로 11개 과학기술 분야 용어집이 만들어지고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에 당시 문교부와 학회가 협력하여 『과학기술용어집』¹⁰⁾이라는 이름으로 총 22개 분야의 과학기술 용어집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표준어는 해방이후에 시작되어 그 역사가 길지 않고 각 학회 내부에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의학

10) 문교부 안에 과학기술용어심의회가 마련되어 65개 소분과위원회가 사정하여 정리한 용어집으로 1970년 9월 15일에 완간됨(동아일보, 1970년 10월 9일자 기사 참조).

의 경우에도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되었으나 산하 학회에 따라 용어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는 곳도 있어서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학술용어 표준화의 역사¹¹⁾는 1870년대 후반, 각 학회의 창설에서 시작된다. 학회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서구의 새로운 학문, 근대 과학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학자와 교육자에 의한 학술용어의 번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용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초기 단계에는 각 학술 분야는 학술 분야대로 용어 통일을 추진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1930년대 국가의 각종 자원에 관한 표준용어 제정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용어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던 것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패전의 원인이 원자폭탄 투하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과학에 뒤처졌기 때문이고 전후 국가 재건에 있어서도 과학의 힘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과학이 모든 인류에 보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었다. 이에 학계와 교육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문부성이 자연과학 및 인문과학의 복잡하고 난해한 학술 용어를 쉽고 명확한 용어로 통일하여 보급하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각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통일된 용어의 제정과 그 보급에 힘쓴 결과 일본 문부성은 관련된 학회들의 전면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28개 전문분야의 용어를 수록한 『학술용어집』을 출간하였다. 이처럼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마련된 『학술용어집』은 정부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 『일본공업규격(JIS)』의 전문용어, 교과서 용어, 특허명세서 기술용어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제정된 학술용어집이 학술분야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양국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문교부가 마련한 『편수자료』¹²⁾는 교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등학교 교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대학 교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준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문부성 주도로 표준화가 이뤄진 『학술용어집』은 그 영향력이 대학 교재에까지 미친다. 이는 『학술용어집』이 마련되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학회와 정부 정책간의 정합성을 맞추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11) 일본의 학술용어 제정과 표준화의 역사는 青戸(1989)를 참조하였다.

12) 1959년에 편수자료 제1호가 발간된 이래,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한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의 것은 2011년 12월 30일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것이다.

때문이며 이러한 사실은 전문용어의 사용에 대한 사회 인프라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번역학 용어로 다시 논의의 초점을 맞춰보자면, 한국과 일본에 각기 유입된 시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표에서와 같이 한 개념에 대한 표준화의 정도가 다른 것은 이처럼 용어 표준화와 전문용어 제정의 역사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번역 유형

용어의 번역 유형을 구분에 있어서는 김성원, 김정우(2011) 「전문 용어 번역의 유형과 방법론」의 나오는 네 가지 번역 유형을 원용하였음을 밝힌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논문에 나타난 번역학 용어 번역 유형

번역 유형	국내 논문	일본 논문
의미 번역	201(91.4%)	181(80.4%)
음성 번역	1(0.5%)	19(8.4%)
혼용 번역	16(7.3%)	16(7.1%)
영 번역	2(0.9%)	9(4%)
전체 용어수(%)	220(100%)	225(%)

〈표 6〉 『번역학 입문』에 나타난 번역학 용어 번역 유형

번역 유형	국내 논문	일본 논문
의미 번역	107(90.7%)	87(73.7%)
음성 번역	0(0%)	7(5.9%)
혼용 번역	11(9.3%)	24(20.3%)
영 번역	0(0%)	0(0%)
전체 용어수(%)	118(100%)	118(100%)

먼저 논문과 『번역학 입문』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음성 번역과 영 번역이

『번역학 입문』에서 줄어든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여러 명의 연구자가 각기 쓴 논문보다 소수의 인원이 번역의 방향성이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용어 선택을 한 번역 서적이 용어의 선정에 더 주의를 기울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번역 유형을 살펴보면, ‘의미 번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영 번역’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음성 번역’이다. 음성 번역은 말하자면 외국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음역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음성 번역의 경우 논문과 서적 모두에서 한국어보다 일본어 쪽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의미 번역과 음성 번역이 합쳐진 혼용 번역에도 음성 번역이 포함되므로, 음성 번역과 혼용 번역을 합한 수치까지 보더라도 한국(논문 7.8%, 『번역학 입문』 9.3%), 일본(논문 15.5%, 『번역학 입문』 26.2%)으로 일본이 높은 비중을 보인다. 한국에 비해 일본이 음성 번역이 많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일본어가 영어에서 차용한 외래어의 수가 20세기 후반에 크게 증가하였다는 김애란(2009)의 보고와도 관련이 있다. 김애란(2009)에 따르면 20세기 후반부터 일본어 어휘 내의 외래어 비중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져 기본어휘 안에까지 대량으로 진출한 결과, 한국어와 비교할 때 일본어 쪽의 외래어 사용 비중이 높아졌음을 보고하고 있다. 일본어에서 외래어 사용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이 밖에도 장원재(2003)의 한국어와 일본어 어휘 조사, 신민철(2001)의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기본어휘 비교’¹³⁾, 이은용(2010)의 한일 출판 번역물 분석을 통해 고찰이 이뤄

13) 구체적으로 신민철(2001)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 비교 연구를 위하여 각 언어에서 가장 기본 어휘로 선정된 ‘초등학생기본어휘’를 대상으로 어종별 구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기본어휘의 어종별 구성〉

어종	한국어		일본어	
	어수	비율	어수	비율
고유어	2285	54.9	2353	57.1
한자어	1373	33.0	1421	34.4
외래어	57	1.4	209	5.1
혼종어	444	10.7	144	3.5
계	4159	100.0	4133	100.0

표에서 보면 어종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구성을

졌다. 이 중 이은용(2010)의 경우는 일본어로 된 출발텍스트를 한국어 도착텍스트로 옮긴 문학텍스트와 비문학텍스트를 분석하였는데 양쪽 모두 일본어텍스트의 외래어 사용비중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의 용어에 대해 일본어와 한국어로 각기 번역한 상기의 번역 용어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어로 된 출발텍스트를 한국어로 옮길 때조차도 일본어 쪽의 외래어 사용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김애란(2009)이 고찰한 바와 같이 기본 어휘 안에 진출한 외래어의 양적 차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어에서 외래어를 그래도 수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라(野村 2004)는 ‘한자의 미래’라는 제목의 책에서 상기의 이유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용어에 대해 무리하게 한자로 된 용어를 만들어 쓰기 보다는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오히려 의미전달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어로 바꾸기 힘든 용어는 풀어서 번역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의 각 부처에서 발행하는 白書에 등장한 ‘normalization’을 음성 번역한 ‘ノーマライゼ-ション’을 일본어로 바꾸고자 ‘等生化’라는 조어를 만들고는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等しく生きる社会の実現(공평하게 살아가는 사회 실현)’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외래어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편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한자어의 경우 하나의 고유어에 대해 다양한 한자표기가 대응하는 동음어나 유음어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빈(2007)에 의하면, 동음이의어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입말로는 불완전하여 한자 표기를 전제로 한 시각에 의존하는 언어문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자표기의 경우,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방대한 한자를 모두 익혀서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은 한자를 제한적으로 사용¹⁴⁾하고 있다.

보인다. 한자어(漢字語)는 양 언어 모두에서 30%를 넘는 양상을 보이는데, 외래어의 경우는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 격차가 크게 보이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외래어가 유입된 역사가 길고 짧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논하였다.

14) 한자 제한의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방대한 한자 중 일상생활에 필수

세 번째로는 두 문자로 된 한자어 조어를 만드는 것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노무라(2004: 235)에 따르면 신문 조사를 통해 볼 때, 한자 어휘 출현수는 글자수로 볼 때 두 문자 > 네 문자 > 세 문자의 순으로 많이 출현한다. 네 문자의 경우 언어학적으로는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단어와 연어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가능하면 사용하기 쉬운 두 문자로 된 한자 어휘를 많이 만들어 사용하였다. 일본은 근대 이후 많은 수의 두 문자의 한자로 된 조어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그것이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현대의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개념을 담기 위한 한자 조어 생성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노무라(2004)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어 어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외래어가 가진 힘을 활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이런 점은 번역학 분야에서 베누티(L. Venuti)를 필두로 한 ‘이국화 번역’을 주창하는 학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

다음은 번역된 용어에 출발텍스트의 표기를 병기한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출발어의 용어를 병기한 건 수

번역 유형		한국어 텍스트	일본어 텍스트
의미 번역	논문	201건 중 60건	181건 중 40건
	번역학 입문	107건 중 97건	87건 중 31건
혼용 번역	논문	16건 중 2건	16건 중 4건
	번역학 입문	11건 중 11건	24건 중 3건

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수를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작성과 표현이 가능한 일본어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자 제한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는 ‘当用漢字’와 ‘常用漢字’가 있다. ‘当用漢字’는 일상생활에서 문자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1809자이며 1946년에 발표되었다. ‘常用漢字’는 방대하고 복잡한 한자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1923년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를 1962자로 지정한 것이다. 이것은 1931년에 1858자로 개정되었고, 다시 1981년에 ‘当用漢字’를 대신하는 것으로 고시된 한자로, 일반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기준으로 1945자를 선정하였다(廣辭苑;1287 참조).

한국어텍스트가 일본어텍스트에 비해 출발텍스트의 표기를 병기한 건수가 많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본어는 음성 번역이 많기 때문에 굳이 출발텍스트의 표기를 병기하지 않아도 원래의 표기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텍스트는 의미 번역이 대부분이고 음성 번역과 혼용 번역이 일본어텍스트에 비해 적은 편이며, 한 개념에 대해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원래의 표기를 통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서구에서 유입된 번역학 용어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의 사용 실태와 번역 유형을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의 번역 단위는 단어이며, 이에 대해 번역 유형을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의미 번역(한국어 90%대, 일본어 80%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 한국어 쪽의 의미 번역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대로 출발어를 차용하며 음역한 음성 번역(한국어는 논문과 서적에서 모두 0.5%미만, 일본어는 논문은 8.4%, 『번역학 입문』은 5.9%)은 일본어 쪽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 논문의 분석 내용에서 일본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고찰을 다뤘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든 것이 용어를 차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이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러나 이점과 관련하여 용어 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차용하는 방법이 더 쉬울 수는 있으나 자국어로 된 용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쓸모가 있다는 후안 사헤르(Juan C. Sager)¹⁵⁾의 주장 또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분야이든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 또한 그 용어가 생성, 사용, 변화, 때로는 소멸되는 순환 과정을 거칠 것임을 생각하면 자국의 언어로 체계화하여 정리하고 다듬어서 만든 용어를 가지는 편이 기존 용어와의 상존,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학문적 자생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그 학문을 발전시켜 가는 데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번역학이라는 학문이 태생적으로 학

15)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2009: 380) 참조.

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모든 학문 분야가 인접 분야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게 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인접 학문과 호환성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면에서도 자국어로 된 용어를 가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이 된 번역학 용어의 경우 한국은 ‘자국화’에 가까운 용어로, 일본은 ‘이국화’에 가까운 용어로 번역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난 데에는 언어를 둘러싼 양국의 사회, 문화, 정치적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각자의 사회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양식으로 번역을 하였기에,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의 번역이 옳다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양국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지만, 일본은 한자를 음과 훈, 그리고 일본문자인 가나를 자국의 방식으로 사용하여 표기하고 한국은 표음문자인 한글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또 한국은 자국화에 대한 의식이 높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자국화’나 ‘자국어’에 대한 의식의 차이는 식민 지배 경험의 유무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일본은 ‘자국어’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고 외래어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한국은 식민지배로 인한 압박을 경험하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 것을 지키려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문화적 산물임과 동시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과는 달리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에 의해 의식적으로 의미 있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¹⁶⁾. 번역을 할 때는 이러한 요인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인접해 있고 여러 면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결과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경우 번역학이라는 특정 분야의 용어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각기 어떤 사용 실태와 번역 양상을 보이며, 여기에서 드러난 차이점과 그러한 차이를 초래한 배경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선영아(2008)에서 말한 번역이라는 사회적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동화와 이화라는 두 가지 힘이 각각 어떠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6) 『한자의 미래』(2007)에서 ‘옮긴이의 글’을 참조함.

그러나 본고에서 분석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향후, 좀 더 다양한 번역학 분야 자료의 분석, 그리고 다른 분야의 용어 사용 실태와 번역 양상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가 확대되고 심화되어 번역학 용어의 제정과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성원, 김정우 (2011) 「전문 용어 번역의 유형과 방법론」, 『번역학연구』 12(2): 34-52.
- 김애란 (2009) 「현대일본어어휘에 있어서의 ‘외래어의 기본어화’」, 『일어일문학 연구』: 제69집.
- 김영환 (2006) 「번역 문화의 전통과 번역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 『번역학 연구』 7(1): 7-24.
- 김정우 (2000) 「언어학 술어 번역의 체계화 문제」, 『번역학연구』 1(2): 5-24.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8.
- 김혜영 (2009) 『국어 번역 글쓰기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국문과.
- 선영아 (2008) 「‘동화(同化)’의 미학과 차이(差異)’의 윤리: 문학 번역의 두 가지 명제」, 『번역학연구』 9(40): 190-219.
- 송영빈 옮김 (2007) 『한자의 미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野村雅昭 (1988) 『漢字の未來』 筑摩書房]
- 송영빈 (2012) 「의학 논문을 통해 본 전문용어 사용 양상」, 『한국사전학』 제20권: 211-233.
- 이연향 옮김 (2005) 『번역 용어집』. 서울: 한국문화사 [J. Delisle (ed.). (1999) *Translation Terminolog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이은용 (2010) 『일한 출판 번역물에 나타나는 번역 양상과 번역전략 고찰』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 임호경 옮김 (2006) 『번역의 윤리』, 서울: 열린책들. [L. Venuti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New

York: Routledge.]

- 장원재 (2003) 「現代日韓語彙の對象研究: 對譯コーパスを資料に」, 『日本學報』 55(1).
- 정호정 (2007) 「동일한 언어로 말하기: 번역학 연구를 위한 용어 통일의 시급성」,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9(1): 173-203.
- 정호정 (2010) 「번역과 전문용어학, 전문용어학과 번역학」, 『통역과 번역』 12(2): 235-254.
- 青戸邦夫 (1989) 「學術用語制定の歴史」, 『日本語學』 4月号 : 66-73.
- 申政徹 (2001) 「日韓語彙の比較研究: 小學基本語彙を對象として」, 『比較語彙研究の試み』 名古屋大學大學院國際開發研究科 7.
- 野村雅昭 (2004) 「漢字に未來はあるか」, 『漢字の未來』 5 : 221-248. 朝倉書店.

사전류

- 한국번역학회 옮김 (2009).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M. Baker (ed.).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新村出編 (1997) 『廣辭苑』第四版, 岩波書店.

분석 자료

- 김한성 (2011) 「번역태도의 자국화와 이국화: 일본어 소설 『고도』(古都)의 영역 및 한역 비교분석」, 『번역학연구』 12(1): 123-143.
- 선영아 (2008) 「‘동화(同化)’의 미학과 차이(差異)’의 윤리 :문학 번역의 두 가지 명제」, 『번역학연구』 9(40): 190-219.
- 신지선 (2011) 「‘구체화 이론’과 ‘이중 부호 이론’에 입각한 그림책 번역전략」, 『번역학연구』 12(2): 109-128.
- 윤성우 (2007) 「벤야민(W. Benjamin)의 번역론에 관한 소고」, 『번역학연구』 8(1): 176-191.
- 이근희 (2004) 「번역의 변환(shift) 현상에 관한 소고: 정보 제공 목적의 텍스트 중심」, 『번역학연구』 5(2): 113-144.

- 이은숙 (2007) 「해석이론과 등가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18(1): 246-259.
- 임순정 (2010) 「고전 문학 작품의 재번역 양상: 스탕달의 『적과 흑』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127-149.
- 정연일, 남원준, 옴김 (2006) 『번역학 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J. Munday (2000)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정정림 (2008)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일-한 더빙 번역에 나타난 번역자의 개입: 코드(code)와 적합성이론(Relevance Theory)의 관점에서」, 『통번역학연구』 11(2): 119-133.
- 조재영 (2003) 「원문 분석에서 Jespersen과 Nida」, 『논문집』 7. 통역번역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187-207.
- 호사카 유지 (2003) 「일본 대중소설에 대한 직역 과 의역 및 개작에 관한 소고」, 『번역학연구』 4(1): 97-116.
- 河原清志 (2008?) 「英日語双方向の訳出行為におけるシフトの分析: 認知言語類型論からの試論」, 『翻訳研究への招待』 3: 29-49.
- 佐藤美希 (2004) 「日本語翻訳における foreignization と domestication のストラテジー: オスカー・ワイルドの作品翻訳をめぐって」, 『国際広報メディアジャーナル=International Media and Communication Journal』 2: 185-203.
- 佐藤美希 (2009) 「新訳をめぐる翻訳批評比較」, 『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57: 1-20.
- ジェレミ・マンディ 著. 鳥飼玖美子監訳(2009) 『翻訳学入門』. 東京: みすず書房.
- 谷崎 秋彦 (2006) 「翻訳の運命と目的地: 벤야민의 翻訳論」, 『東京工芸大学工学部紀要』 29(2): 1-8.
- 玉置 祐子 (2004) 「体系的翻訳論への一試論: 情報構造および関連性理論を中心に」, 『Interpretation Studies』 4: 157-169.
- 玉置祐子 (2005) 「FOREIGNIZATION (異化)-理論と実際: 訳文の語彙を中心に」, 『Interpretation Studies』 5: 239-254.

- 古市久子・西崎有多子(2009)「絵本の翻訳に何が影響しているか: 日英の絵本を通して」, 『東邦学誌』 38(1): 27-51.
- 水野 的 (2004) 「意味の理論の批判と通訳モデル」 『通訳理論研究』日本通訳学会.
- 水野的 (2007) 「近代日本の文学的多元システムと翻訳の位相-直訳の系譜」, 『翻訳研究への招待』: 1-43.
- ラルフ・デーゲン (2004) 「翻訳・その思想と現場の問題」, 『高崎経済大学論集』 46: 137-151.

〈부록 1〉 논문에 출현한 번역학 용어

국내 논문
번역학
의역
자국화전략
동화
동화의번역
병합
도착텍스트중심적번역
자민족중심번역
의미중심번역
직역
외국화전략
이화
낮설게하는번역
이국화전략
외국화번역
탈중심
축지역
외국화주의자
출발텍스트중심적번역
원문중심번역
출발텍스트
원전텍스트
원텍스트
원작
원문
원문텍스트
원천텍스트
원전
원작품
번역텍스트
번역문
번역문텍스트
번역물
목표텍스트
번역작품
원어언어

일본 논문
translation studies
異文化性
直訳
foreignization
異化
脱中心化
逐語訳
原文至上主義
異質化翻訳(foreignization)
悪訳
意識
domesticationのストラテジー
domestication
馴化させる
自文化に即す形で翻訳する
自由訳
自言語中心主義
受容化翻訳(domestication)
良訳
原文テキスト
原文
原テキスト
原典
原作
翻訳テキスト
訳文
翻訳
原語
起点言語
受容原語
B言語
目標言語
自言語
他言語
目標文化(target culture)
起点文化(sourceculture)

SL
출발어
출발언어
원천언어(sourcelanguage,SL)
원문언어
원천언어
번역어
도착어
TL
모국어
수용언어
도착언어
목표언어(targerlanguage,TL)
목표언어
원천문화
수용문화
목표문화
번역수입국
역자
번역사
번역가
번역자
원저자
통역사
중재자
중간자
중간자(dasMedium)
저자
번역론
해석이론
적합성이론
관련성이론(relevance theory)
이국화(foreignization)
관계성이론(relevancetheory)
공손전략
기술적접근방법(descriptiveapproach)
번역규범
포스트식민주의
폴리시스템이론
전략

異文化
自文化
翻訳者
原作者
通訳者
訳出者
受け手
解釈理論
意味の理論 theory of sense
解析的理論 interpretivetheory
非言語化 deverbalize、
ノンバーバル
再言語化
関連性理論
SKOPOS理論
技術的translation studies
翻訳観
翻訳論、
翻訳可能性
翻訳不可能性
訳出
言説
翻訳技法
Norm
ストラテジー
翻訳ストラテジー
翻案
等価
文化変容
流暢な言葉
わかりやすく
対極にある
わかりやすい(naturalness)
自然さ
忠実さ
介入
転移
逆行変形
概念トランスファー
上位概念化

번안
재번역(retranslation)
코드전환
대응번역
탈언어화
interpretation(해석,통역)
재언어화
외화(外化)
명시화
일반화(generalization)
의사소통적등가
내용적등가
형태적등가
형식적등가(Formal equivalence)
결과적등가
외연적등가(Denotativeequivalence)
내포적등가(Connotativeequivalence)
텍스트규범적등가 (Text-normativeequivalence)
화용적등가(Pragmatic equivalence)
역동적등가(dynamicequivalence)
등가
맥락효과(contextualeffect)
기표(signifier)
기표(시니피앙)
기의(signified)
기의(시니피예)
언어적대응
언어사용역
재표현
유표적(marked)표현
무표적(unmarked)표현
풀어서번역하기
언어간번역
대체번역(toboeclerize,Bowledring)
역번역
맥락(context)
가정(assumption)
직시(deixis)
함축,암시(implicature)

等価効果 equivalent effect
言い換え paraphrasing
文脈効果(contextualeffect)
文脈
想定(assumption)
受容性(acceptability)
関連性
等価性
原文分解
再構成
テキストレベル
テーマ・レマ関係
表意(explicature)
推意(implicature)
関係性
レベル
明示化
範疇化(categorization)
結束性
シフト
スキーマ
媒介
相同性(homology)
規範化
背景化
前景化
レベルシフト
カテゴリーシフト
rewriting
manupulation
発話状況(context)
コンテキスト
核文
典型(prototype)
轉換子
signifier(signifiant)
signified(signifie)
シニフィエ
翻訳調

전제(presupposition)
추론(infer)
전제된가정(assumption)
의미부여(encoding)
해독(decoding)
틀(framework)
수정(mosification)
변환(shift)
도식(schema)
역변환
상위범주
하위범주
상위어
하위어
개념어
표층구조
설명항(說明項)
층위
상실
획득
대체(substitution)
삽입(addition)
삭제, 생략(deletion)
왜곡(distortion)
대응어
개입
중재
보상(reward)
언어외적지식
수신인
전유(appropriation)
메타포
등가물
변용
문화자본(capitalculture)
언어자산
문화적 변환
위계질서
담론

shadowing
サイトトランスレーション
發話の産出
認知的補足物 cognitive complements
背景知識
認知的脈絡
認知的痕跡
言語外知識
心的イメージ mental image
言語的外皮
超越的意味transcendentalmeaning
自然言語
人工言語
中間言語(interlingua)
純粹言語
paralanguage
パラ言語、發話付随音声現象)
内語
意味表象 semanticrepresentation
順次の平面serialplane
心的概念mentalconception
構造的平面 structural plane
遊動空間(spielraum)
バラレルテキスト
対立概念
二項対立
訳出する
キャノン, カノン
メタテキスト
カルチュラル・ターン
自民族中心主義
原文忠実主義
自民族逸脱主義
他者性
異様さ
語り口
突飛さ
突飛性
変換
辞書語

변형
손실없는교환
대척점
정진
민족문학
토착문학
세계문학(Weltliteratur)
부정한미녀들(Bellesinfideles)
바벨이후(AfterBabel)
보편성
지역성
적절성
잡종성(hubridity)
수용성
적합성
관련성
텍스트성
유려함
가독성
충실성
상동성
번역투
순수언어(pure language)
자연언어
신성언어
속어
보편언어
후주
역주
각주
중개자
저본
주변성
순화
어조
지역문학
로컬문학
비동등성

喪失
文語調
訳語
原書
仮訳
原語使用域(register)
語感
均質性
文語体
語彙借用 (calque)
外化
外国化
変項
檢閲機関
言語圈
文化圈
再構造化
表層レベル
明示の意味(denotative meaning)
指示の意味(referential meaning)
暗示の意味(connotative meaning)
内包の意味
機械翻訳
コード解読
歪み
改作
忠実訳
コミュニケ-ティブ効果(communicative effect)
間主観
新訳
初訳
翻訳テキスト
翻訳規範
翻訳事象
翻訳外テキスト(extra textual source)
既訳
先行訳
訳し忘れ
リライト

기본문(core sentence)
kernel sentence(핵문)
동등효과
격문법
서법성(modality)
명제(proposition)
심층구조
일차어(primary)
이차어(secondary)
삼차어(tertiary)
어계(rank)
완역
부분역
중역(重訳)
원천어
의미역(sense for sense translation)
문자역(ward for ward translation)
역본
대본
문화적지시체
윤색
용인성
구체화(concretization)
배경지식

決定訳
訳業
原文密着主義
不実な美女
貞潔な醜女
訳語
定訳
口語体
直接訳
重訳
文語訳
口語訳
翻訳モード
漢文調
戯作調
ノーム
foreignizing translation(異質化的翻訳)
domescating translation(受容化的翻訳)
翻訳方略
訳文体
周密訳
超訳
結合性(cohesion)
整合性(coherence)
疎隔(estrangement)
革新性
作動記憶
欧文脈
オノマトペ
音遊び

〈부록 2〉 『번역학 입문』에 출현한 번역학 용어

한글판	일본어판
원천언어(source language, SL)	起点言語
목표언어(target language, TL)	目標言語
원천텍스트(source text, ST)	起点テキスト
목표텍스트(targettext, TT)	目標テキスト
기호간번역(intersemiotictranslation)	記号法翻訳
변환(transmutation)	移し変え
번역학(translationstudies)	翻訳学
의사소통교수법(communicativeapproach)	コミュニケーションアプローチ
기술론적번역(descriptivetranslationstudies)	記述的翻訳研究
특정매체이론(medium-restrictedtheories)	媒体限定理論
특정지역이론(area-restrictedtheories)	地域限定理論
특정층위이론(rank-restrictedtheories)	レベル限定理論
특정텍스트타입이론(text-typerestrictedtheories)	テキストタイプ限定理論
특정시기이론(time-restrictedtheories)	時間限定理論
특정문제이론(problem-restrictedtheories)	問題限定理論
담화타입(discourse type)	ディスコースタイプ
형식주의(formalism)	フォルマリズム
문학폴리시스템(literarypolysistem)	文学の多元システム
캐니발리즘학파(cannibalismschool)	カンニバル学派
탈식민지주의번역이론	ポストコロニアル翻訳理論
번역전이(translationshift)	翻訳転移(translationshift)
효과의등가(equivalenceofeffect)	等価の効果
형태적등가(formalequivalence)	形式等価(formal equivalence)
동태적등가(dynaminequivalence)	動的等価(dynamic equivalence)
어의적번역(semanticttranslation)	意味重視の翻訳(semanticttranslation)
소통적번역(communicativetranslation)	コミュニケーション重視の翻訳 (communicativetranslation)
변이(shift)	シフト(shift)
스코포스이론	スコポス理論
어역분석(registeranalysis)	レジスター分析
담화중심접근법	談話志向アプローチ
문화학적접근법	文化的アプローチ
이국성	異質性
해체주의운동(deconstructionmovement)	脱構築運動
옮겨쓰기(metaphrase)	置換訳(メタフレーズ metaphrase)
바꿔쓰기(paraphrase)	換言訳(パラフレーズ paraphrase)
모작(imitation)	模造訳(イミテーション imitation)

단어대단어(word-for-word)번역	逐語訳(word-for-word)
의미대의미(sense-for-sense)번역	意味対応訳(sense-for-sense)
직역	直訳
의역	自由訳
충실성	忠実性
정확성	正確性
원저자	原著者
상실(loss)	損失(loss)
획득(gain)	付加(gain)
위계(hierarchy)	階層
귀화(naturalize)	同化作用
외화(alienating)	異化作用
이국화(foreignization)	異質化
자국화(domestication)	受容化
술어	用語
합치성(coherence)	一貫性
기표(signifier)	意味するもの
기의(signified)	意味されるもの
의미장(semanticfield)	意味野
기호단위(codeunit)	コード・ユニット
역변형(back-transformation)	逆行変形(back-transformation)
직접전이(literaltransfer)	直訳的転移
문체전이(literarytransfer)	文学的転移
적확성(correctness)	妥当さ
외래성(foreignness)	異質性
수용자기반(receptor-based)	受容者重視
과대번역(over-translation)	過剰翻訳
과소번역(under-translation)	過少翻訳
맥락적의미(contextualmeaning)	文脈的意味
내포적등가(connotativeequivalence)	暗示的等価(sonnotative equivalence)
대체(replacement)	置き換え
번역전략(translationstrategy)	翻訳の方略
번역변이(translationshift)	翻訳のシフト
직접번역(directtranslation)	直接的翻訳(direct translation)
간접번역(obliquetranslation)	間接的翻訳(oblique translation)
모사(calque)	語義借用 (なぞり)calque)
의사등가어(falsefriends)	類似異形義語(falsefriends)
치환(transposition)	転位(transposition)
변조(modulation)	調整(modulation)
수정(revise)	改訂

층위의변이(shiftoflevel)	레벨의시프트
범주의변이(shiftofcategory)	카테고리의시프트
불변소(invariant)	不変項
의미의절대값(tertiumcomparation)	比較のための第三項
발화사고법(think-aloud-protocol, TAP)	発話プロトコル法(think-aloud-protocol)
기능주의번역이론 (functionaltheoryoftranslation)	機能的翻訳理論
정보적텍스트(informativertext)	情報型テキスト
표현적텍스트(expressivertext)	表現型テキスト
작용적텍스트(operativertext)	効力型テキスト
시청각미디어텍스트(audiomedialtext)	オーディオ媒体のテキスト
수신자(receiver)	受け手
발신자(sender)	送り手
기호화(encode)	コード化
충분성(adequacy)	適切性
번역브리프(translationbrief)	翻訳概要
기능주의문법 (systemicfunctionalgrammar)	選択機能主義文法 (systemicfunctionalgrammar)
불일치(mismatch)	不整合(mismatch)
오류(error)	誤り
외현적번역(overttranslation)	顕在化翻訳
내재적번역(coverttranslation)	潜在化翻訳
문화적여과장치(culturalfilter)	文化フィルター
주제(theme)	主題(テーマ)
평언(rheme)	題術(レーマ)
함축(implicature)	含意(implicature)
공손(politeness)의격률	ポライトネスの公理
개입(mediation)	仲介
문화적맥락(culturalcontext)	文化的コンテキスト
담화장(field)	活動領域(フィールド)
담화매체(mode)	伝達様式(モード)
담화관계(tenor)	役割関係(テナー)
결과물(product)	産物(product)
기본규범(initialnorm)	初期規範(initial norm)
환경규범(prelininarynorm)	予備的規範(prelininary norm)
실행규범(operationalnorm)	運用規範(operational norm)
형체규범(matricialnorm)	基質的規範(matricial norm)
표준성증가의법칙 (lawofgrowingstandardization)	標準化進行の法則 (lawofgrowingstandardization)
문화적전환(culturalturn)	文化的転回
개작(rewriting)	書き換え

탈구조주의	ポスト構造主義
번역체(translationese)	翻訳調
소수화(minoritizing)번역	マイノリティ化(minoritizing)翻訳
토착어(vernacular)	地域口語(vernacular)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ranslation Studies Terms and Translation
Types in Korea and Japan**

Lee, Eun Yo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current use of translation studies terms and translation types in Korea and Japan. The study made an analysis of translation studies terms found in theses and books related to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and Japan.

As most academic terms came from Japan to Korea in the past, translation in Korea was largely done by borrowing terms translated in Japan and then doing a transliteration of the terms. Compared to this method, translation studies terms were accepted as a new field of study by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and accordingly translated to fit in to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language of each country. A comparison of translation studies terms of the two countries in this study showed that Korea used a greater number of terms for the same concept than Japan did. The reason may be that Korea has less experience in standardization of academic terminology than Japan. Another comparison of translation types showed that Japan used more loan words than Korea. This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difference in the present use of langua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Japanese language recognizes more loan words in its basic vocabulary than the Korean language do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provided a basis for understanding not only the difference in the current use of translation studies terms and translation type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pan but also the

background to such difference.

▶ Key Words: Translation studies terms, terminology, translation types, standardization.

이은용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겸임교수

yong0914@korea.com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용어학, 어휘 연구, 코퍼스 분석, 번역에서의 개입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15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5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3일